

## 비비씨, 공모가 30,700원 확정... 희망가 밴드 최상단

- ▶ 1,156개 기관 참여, 경쟁률 977.5대 1 ... 수요예측 흥행 성공
- ▶ 세계 최초·유일의 테이퍼 소재 기술력 & 신사업 모멘텀 높이 평가, 21일 코스닥 입성

<2020-09-07> 미세모 소재 기반 덴탈케어 전문기업 비비씨(대표 강기태)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했다.

비비씨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총 1,156개 기관이 참여, 9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27,100원~30,700원) 최상단인 30,700원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공모금액은 368억원 규모다.

상장을 주관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실제 수요예측 참여 물량의 99% 이상(99.997%)이 공모밴드 상단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등, 비비씨의 소재 기술 기반 중장기 사업 비전이 높이 평가됐다"고 전했다.

기능성 칫솔모 등 덴탈케어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한 비비씨는 세계 최초·유일의 테이퍼 소재 개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증명했다. 현재 국내 칫솔모 시장 점유율 70%, 해외 186개 기업에 수출 등 국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IPO 컨설팅을 진행한 IR큐더스 관계자는 "비비씨의 해외 매출 비중은 78.5% 수준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K-제조업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며 "마스크, 뷰티케어 분야 등 이익률 높은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해질 예정으로, 향후 기업가치 향상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전했다.

비비씨 강기태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비씨 기업공개에 관심을 가져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설비투자 및 신사업 확장에 적극 활용, 헬스·뷰티케어 소재 전문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자료문의 : 비비씨 박성후 대리 070-4900-6612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 6011-2000(#138)